

국내뉴스

국산 첫 초음속기 T-50 양산 1호기 출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대표: 정해주, 이하 KAI)는 지난 8월 30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인사와 군 관계자 및 KAI 임직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인 T-50의 양산 1호기 출고 행사를 가졌다. T-50 고등훈련기는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로, 2002년 8월 초도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당초 계획한 1,140여회의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내 금년 10월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T-50 양산 1호기 출고와 더불어 한국은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가가 됨으로써 항공기 개발 및 생산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함은 물론 독자적인 항공무기체계 운용기반 구축으로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 항공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국방부 조달본부는 T-50의 모든 부속품에 국제 분류체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를 주는 국가 재고번호 부여 작업을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해 올 연말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까지 완료한 작업내용을 우리나라 항공과학기술의 역량을 세계에 입증할 수 있도록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상호색인자료(NMCR)'에 등록했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도 2,900만 품목이 등재된 상호색인자료를 통해 군수목록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는 물론 방산품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국산 전술통제기 1호기 KO-1 출고

국내 독자 개발 항공기 최초로 무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KO-1(Korean Observation-1) 전술통제기의 양산 1호기가 지난 7월 27

일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이하 이 총장), 정해주 KAI 사장, 안동만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한 군과 생산업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사천의 KAI 2사업장에서 출고됐다.

이날 출고식에서 이 총장은 "21세기 항공 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다가능 비행 정보 시현 체계, GPS·INS 항법 장비, 전파 체계 통합 제어 시스템 등의 최신 장비를 갖춘 공중 전술통제기가 전력화되면 우리 공군의 주야간 근접 항공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1기는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항공기인 KT-1의 기본 재원은 유지하되 항공 전자 장비를 보강하고 외부 연료 탱크와 로켓 발사관 등을 장착, 무장과 장기 비행 능력을 갖춘 기종으로 전투기를 전술적으로 지휘통제함으로써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펼치게 된다.



대한항공, 대파된 미 공군 HH-60G 탐색구조헬기 조기 수리 납품 달성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김해공장에서는 대파되었던 탐색구조용 HH-60G 헬기의 주요 골격 수리를 성공적으로 조기 완료하여 지난 8월 25일 미군 제330탐색구조대 오버맨(Overman) 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인도한 헬기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래언덕에 사고로 떨어진 항공기로서, 원래는 미국 본토로 수송하여 원제작사나 미 육군 종합정비창(CCAD)에서 수리했으나, 통상적으로 대파헬기 수리시 4~5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대한항공이 2년내에 수리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대한항공 김해공장에서 수리해 온 헬기이다.

대한항공은 기존의 UH-60 헬기 생산사업을 통해 확보된 우수

한 생산설비와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계약일보다 2개월 조기 납품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 9월 미국 본토에서 본 헬기를 수송할 때는 당사 요원이 미국으로 파견되어 B747 화물기로 공수할 수 있도록 부분 분해 작업을 실시, 미 공군 사상 최초로 민항기로 HH-60G 헬기를 수송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수송방법의 개선으로 약 50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금번 작업의 성공은, 과거에는 창장비(완전분해정비)를 위해 C-5 수송기를 이용하여 미 본토 CCAD 종합정비창까지 많은 물류비를 소모하며 작업하던 것을 가까운 한국에서 높은 품질과 빠른 서비스로 작업을 가능케 한 것이어서 미군 고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1979년부터 미군의 각종 최첨단 항공기에 대한 창장비 사업을 수행해온 대한항공은 주한미군의 최고의 파트너로서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태평양 지역까지도 미군을 완벽하게 후방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공인 종합정비창임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대한항공, B717 기수동체 최종호기 납품

지난 9월 14일,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민항기사업공장 소재인 김해공장에서는 서상목 본부장을 비롯 보잉사 관계자(보잉 코리아 윌리엄 오벌린 사장 외 10명)와 국내 주요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B717여객기 기수동체 156호 최종호기 납품 기념 행사를 가졌다.

기수동체는 여객기의 앞쪽 부위에 위치하며 곡면 형상으로 되어 있어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구조물로, 대한항공은 지난 1994년 12월 동 항공기의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해 기수동체 설계, 제작 및 인증 등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1997년 5월 1호기를 납품한 이래, 이번에 156호 최종호기를 성공적으로 납품하게 된 것이다.

B717 기수동체는 도어(Door)류, 레이돔(Radome) 등 약 6천2백 개의 부품으로 구성돼 있는 구조물로, 각종 부품의 국산화율을 90% 이상 달성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향후 대형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기술력 축적이라는 값진 경험을 얻게 된 동



시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수출에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

조종사가 타지 않고 원격 조종으로 비행하면서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UCAV)가 2020년대에 우리 손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무인 전투기는 현재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개발 중이며 아직까지 실전 배치된 적이 없는 최첨단 무기이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본격 개발 중이며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KF-X)와 무인 전투기에도 이를 적극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위해 오는 2008년을 목표로 총 60억원을 투입, 레이더 전파 흡수 도로·패널 등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스텔스 기술을 한국형 구축함(KDX-II)과 차기 고속정(PGX) 등 함정과 한국형 전투기 등 항공기에 적용, 스텔스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2020년대까지 개발될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프랑스·러시아 등 일부 선진국에 못지않은 군사기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전망이다.

토종 기상위성 첫 수출

우주항공분야 벤처기업인 (주)세트레이아가 말레이시아 정부출연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지구 관측용 소형 인공위성 '라작셋(RazakSAT)'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지난 8월 12일 밝혔다. 내년 초 발사 예정인 라작셋은 높이 1.2m, 지름 1.2m, 무게 200kg의 소형위성으로 적도 부근의 환경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라작셋 수출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독자 수주한 뒤 개발 및 제작을 주도, 국내 위성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첫 우주발사체 추적소 제주에 건설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우주발사체용 추적소가 건설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에 우리나라 독자 우주발사체의 비행을 감시할 제주추적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추적소는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하는 모든 우주발사체를 추적해 각종 비행정보를 수집하고, 발사체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해 고흥우주센터의 통제센터로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발사체의 비행궤적은 물론, 탑재위성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추적소는 우리나라가 오는 2007년 말쯤 독자 위성을 싣고 우주로 발사 예정인 첫 독자 인공위성 발사체(KSLV-1)를 추적할 예정이다. ☺